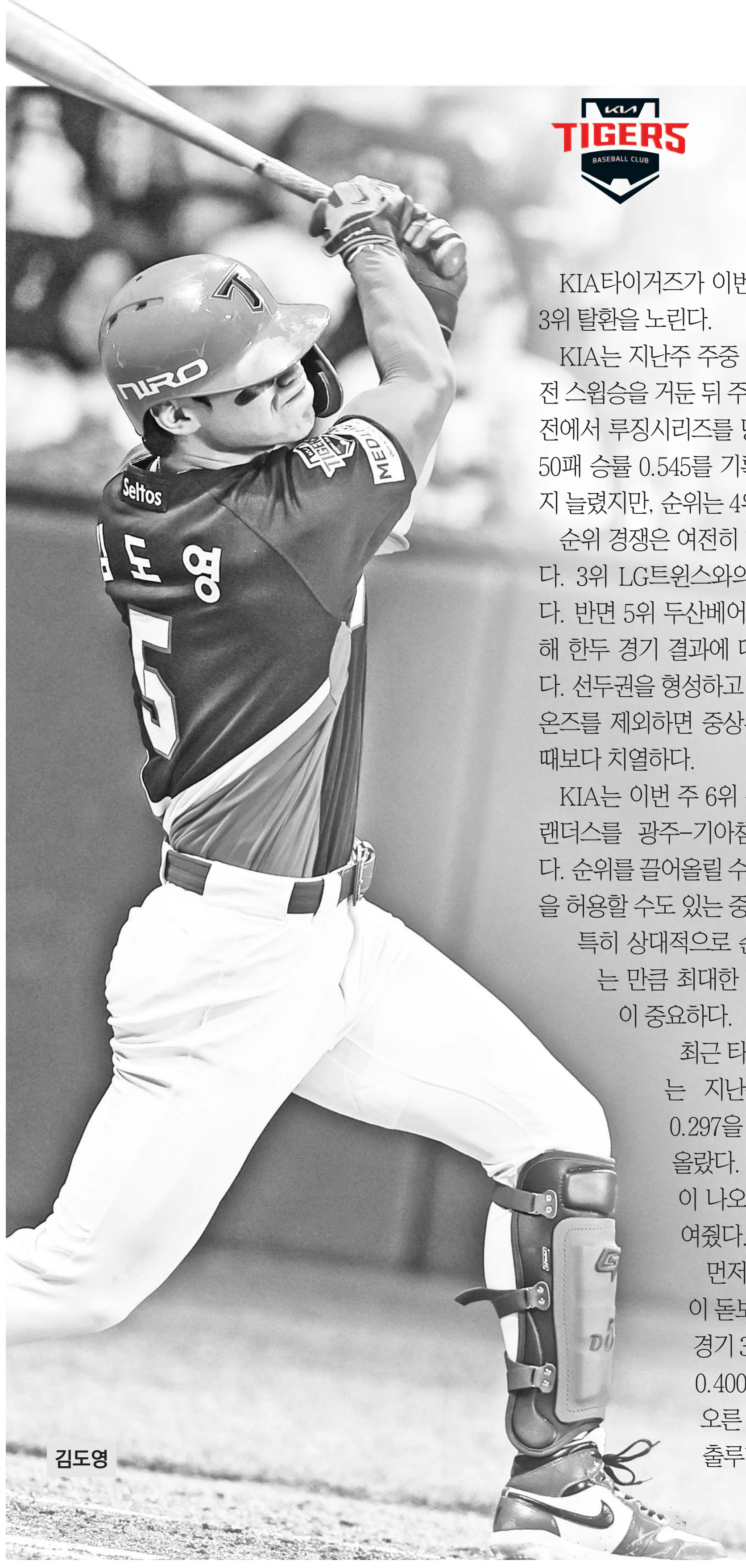
'상승이냐 하락이냐'…KIA, 안방 6연전 승부수

25~27일 롯데·28~30일 SSG와 홈 6연전 돌입
주간 ERA 3위·타율 공동 3위…선발·타선 기대


김도영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안방 6연전에서 리그 3위 탈환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주중 한화이글스를 상대로 3연전 스윕승을 거둔 뒤 주말 키움히어로즈와의 3연전에서 루징시리즈를 당했다. 그 결과 60승 2무 50패 승률 0.545를 기록하며 승패마진을 +10까지 늘렸지만, 순위는 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순위 경쟁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3위 LG트윈스와의 격차는 불과 0.5게임이다. 반면 5위 두산베어스와도 1.0게임차에 불과해 한두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KT위즈와 삼성라이온즈를 제외하면 중상위권 팀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KIA는 이번 주 6위 롯데자이언츠와 9위 SSG랜더스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로 불러들인다.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추격을 허용할 수도 있는 중요한 6연전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두 팀을 만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승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타선의 분위기는 좋다. KIA는 지난주 6경기에서 팀 타율 0.297을 기록하며 리그 공동 3위에 올랐다. 타선 곳곳에서 고른 활약이 나오면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줬다.

먼저 리드오프 박재현의 활약이 돋보였다. 박재현은 지난주 6경기 30타수 12안타 8타점 타율 0.400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물오른 타격감을 앞세워 꾸준히 출루한 것은 물론 승부처에서는 해결사 역할까지 해내며 공격의 선봉에 섰다.

'슈퍼스타' 김도영의 방망이도 뜨겁다. 김도영은 6경기 23타수 9안타 3홈런 5타점 타율 0.391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3일 키움전에서 시즌 38호 홈런을 터뜨리며 홈런 부문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38홈런은 정규시즌 MVP를 차지했던 2024년 작성한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과 타이기록이다.

이제 홈런 하나만 추가하면 개인 최다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KBO리그 최연소 40홈런 기록도 눈앞이다. 2003년 10월 2일생인 김도영이 다음 달 6일까지 홈런 2개를 추가하면 1999년 이승엽이 작성한 최연소 40홈런 기록(22세 11개월 5일)을 갈아치우게 된다.

김호령 역시 힘을 보탰다. 지난주 6경기 19타수 7안타 1홈런 8타점 타율 0.368을 기록했다. 지난 21일 키움전에서는 그랜드슬램을 포함해 혼자 6타점을 쓸어 담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김선빈 또한 6경기에서 타율 0.316을 기록하며 다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마운드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 KIA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 3.76으로 리그 3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선발진이 꾸준히 긴 이닝을 책임지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라카와는 지난 19일 한화전에서 6.1이닝 2피안타 2사사구 3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시즌 중반 이어졌던 컨디션 난조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안정감을 되찾는 모습이다.

'에이스' 아담 올러도 지난 22일 키움전에서 6이닝 4피안타 2사사구 7탈삼진 1실점으로 쾌투했다.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리그 다승 공동 1위다운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제임스 네일은 23일 키움전에서 6이닝 5피안타(1피홈런) 3사사구 8탈삼진 2실점으로 제 몫을 다했다.

'대투수' 양현종도 지난 21일 키움전에서 5.1이닝 2피안타 3사사구 5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특히 이날 13시즌 연속 100이닝을 달성하며 송진우가 보유한 KBO리그 역대 최다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과제는 불펜이다. 선발진이 제 몫을 다하고 있지만 불펜에서 다소 많은 실점이 나오면서 경기 후반 불안한 흐름을 노출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한 점 차 승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뒷문의 안정이 이번 6연전의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KIA는 이런 흐름 속에서 주중 롯데와 3연전을 치른다. 롯데는 현재 50승 2무 58패 승률 0.463으로 리그 6위에 자리하고 있다.

팀 타율은 0.267, 평균자책점은 4.45로 모두 KIA(0.272·4.39)를 밑돌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또한 7승 1무 4패로 KIA가 앞선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날 롯데는 25일 비슬리를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시라카와를 선발로 투입한다.

롯데와의 3연전을 마친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SSG를 만난다. SSG는 팀 타율 0.261, 평균자책점 5.54로 투타 모두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도 8승 1무 3패로 KIA가 압도적 우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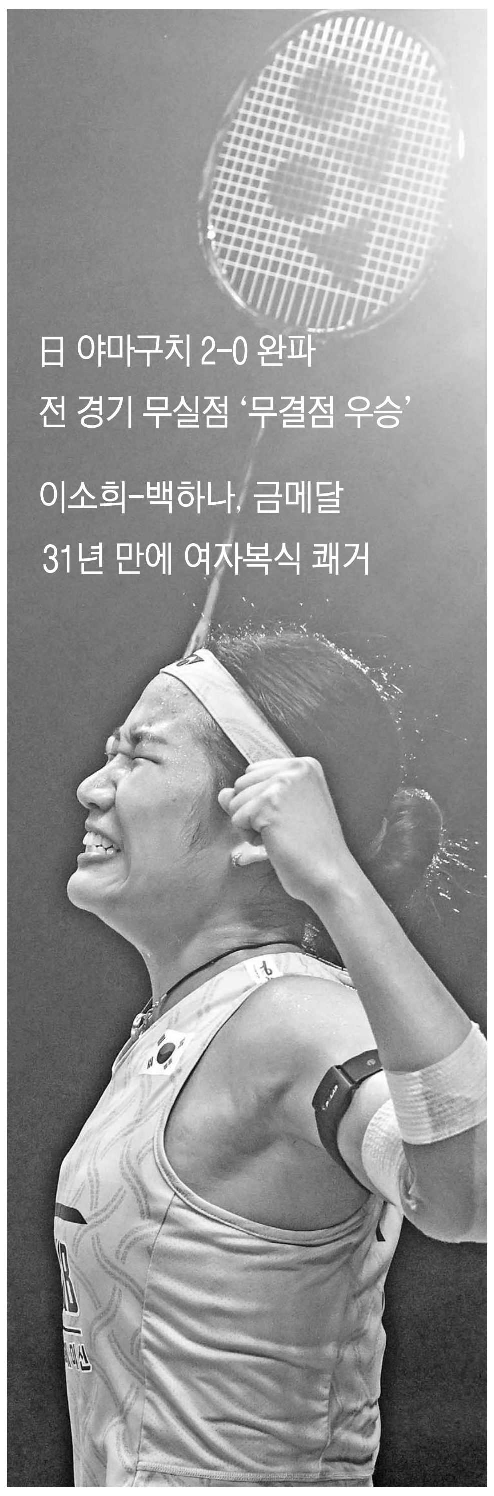
이번 홈 6연전은 KIA가 3위 탈환을 넘어 선두권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안방에서 롯데와 SSG를 차례로 넘어 다시 순위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시라카와

'부상 털고 완벽 부활' 안세영,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부상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고 3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복귀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3일(한국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0(21-17 21-14)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3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한국 배드민턴 단식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은 3년 만에 다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다. 특히 부상에서 돌아온 복귀 무대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안세영은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쪽 발 통증을 호소하며 우승 행진을 멈췄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회복에 집중한 뒤 세계선수권을 통해 코트에 돌아왔다.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뒤따랐지만 결과는 '무결점 우승'이었다.

준결승에서는 세계 3위 왕즈이(중국)를 꺾으며 최근 14차례 맞대결에서 13승 1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결승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야마구치마저 제압하며 최근 상대 전적 6연승을 질주했다.

세계랭킹 1·2위의 맞대결답게 결승 초반부터 빠르고 공격적인 랠리가 이어졌다.

1게임 7-7에서 연속 득점에 성공한 안세영은 11-8로 인터벌을 맞았다. 이후 야마구치의 거센 반격에 17-17까지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지만,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빛났다. 안세영은 내리 4점을 쓸어 담으며 21-17로 첫 게임을 가져왔다.

2게임에서도 안세영의 뒷심이 돋보였다. 초반 5-6으로 끌려갔지만 곧바로 흐름을 뒤집었고, 7-7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앞세워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11-7로 달아났다.

야마구치가 인터벌 이후 11-10까지 추격했지만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비로 상대 공격을 받아낸 뒤 빈 공간을 정확하게 공략하며 다시 16-11까지 격차를 벌렸다.

33차례나 셔틀콕이 오간 긴 랠리에서는 안세영의 장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끈질긴 수비로 야마구치의 공격을 모두 받아낸 뒤 절묘한 드롭샷으로 득점을 완성하며 승기를 굳혔다.

끝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은 안세영은 마지막 매치 포인트에서 야마구치의 범실을 끌어내며 49분간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여자복식에서도 한국 배드민턴의 금빛 낭보가 이어졌다.

세계랭킹 3위 이소희-백하나는 결승에서 세계 1위 류성수-탄닝(중국)을 2-0(21-15 21-15)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 여자복식이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1995년 스위스 로잔 대회 길영아-장혜옥 이후 무려 31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이소희-백하나는 이번 우승으로 류성수-탄닝을 상대로 이어졌던 최근 4연패도 끊어냈다. 지난해 월드투어 파이널 2연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국제대회 정상에 서며 큰 무대에 강한 면모를 재확인했다.

올 시즌 말레이시아 오픈 은메달과 인도 오픈 동메달, 전영 오픈 은메달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시상대에 올랐던 이소희-백하나는 세계선수권 금메달로 최고의 결실을 맺었다.

두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함께 메달을 획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안세영의 3년 만의 정상 탈환과 이소희-백하나의 31년 만의 여자복식 우승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여자 배드민턴은 세계선수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세계 최강의 위용을 뽐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광서 전국 바둑인 한판 승부…세대 아우른 축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배 전국바둑대회 이틀간 열전 전국·전남부 17개 부문 경쟁

전국 바둑 동호인들이 영광에 모여 반상의 열전을 펼쳤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제2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배 전국바둑대회'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전남도바둑협회와 영광군바둑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바둑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부와 전남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회는 전국단체부와 전남단체부를 비롯해 전남일반부 갑·을·병조, 전남여성부, 유치부, 초등 각 학년부, 초등여학생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모두 1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청소년 참가를 확대해 전남 바둑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 선수들이 승패를 넘어 대회를 하나의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바둑의 스포츠 행사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의미를 뒀다.

이번 대회는 총호선에 덤 6집반을 적용해 진행됐다.

대회 결과 전국단체부에서는 순천사자들이 정상에 올랐다. 전국단체부는 3인 1팀으로 구성돼 첫날 8강을 가린 뒤 둘째 날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남단체부에서는 순천삼산이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일반부에서는 갑조 김재한·을조 김홍근·병A조 김성영·병B조 나권채가 각각 정상에 올랐으며 전남여성부에서는 이영진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학생부에서도 미래 바둑 유망주들의 경쟁이 이어졌다.

대학부 김우준, 고등부 권민석, 중등부 한정훈이 각각 우승했고, 남자초등부에서는 1학년 윤이진, 2학년 전설, 3학년 김건우, 4학년 임도진, 5학년 이시현, 6학년 문시욱이 학년별 정상에 올랐다. 여자초등부에서는 마혜주, 유치부에서는 송이안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국을 펼치면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배 전국바둑대회' 참가자들이 대국을 치르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